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㉔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나) 글쓴이의 관점에서

아도르노 미학의 장점을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자율성의 근거는 바로

- 예술과 사회의 관계

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술은 사회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술이 사회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은 바라본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진 무슨 관계인데? 그리고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술의 자율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자율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두 대상이 서로 자율적이라면, 두 대상 중 한 대상이 없든 남은 한 대상의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것, 그런 상태에 대상들의 관계를 자율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확통을 배우셨다면 이 독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수학을 선택과목을 하실 겁니다.

**REMARK** 그래서 기출로 돌아가서 공부하기!!

: 2020학년도 수능 기출 ‘베이즈 주의’

여기에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의합시다! 두 대상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두 대상 사이의 교집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대상이 서로 간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없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영역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 사회적인 것(예술과 사회의 교집합)인 것과  
-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예술에서 사회와의 교집합이 아닌 부분)

- 사회의 본질을 직시(예술의 교집합인 부분인 동시에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서도 사회의 본질 자체를 인식함)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한 것이라 정리했습니다, (나)의 글쓴이가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자율성을 나름대로 증명했으며, 자율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기존의 예술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예시를 이해해봅시다.

-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우선 (나)의 글쓴이는 세잔의 작품을 기존의 예술 작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합니다.

-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㉔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의 본질을 거의 담지 못하는,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작품. 사회적 본질을 거의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을 말할 수 없는 작품.

하지만 세간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간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나의 글쓰기 관점에서  
세간의 작품은 미메시스 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루)

그럼 미메시스는 무엇일까요?

- 미메시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간의 작품에서 감각 가능한 것은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간의 작품으로 돌아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

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 왜 (나)의 글쓰기는 미메시스를 말했지?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글쓰기는

아도르노가 처음으로 가정했던 명제로 돌아갑니다.

-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야한다.

하지만 아도르노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현대 사회의 부조리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모습이 부조리함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름다움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관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인간이며, 인간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만을 위해 예술가가 작업을 한다면, 작품에는 자신의 경험의 일부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는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이 정말 예술가의 온전한 경험과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험과 감정을 다 포함하는, 주관을 온전하게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아도르노의 진정한 예술은 주관을 제대로 재현할 리가 없겠죠.

-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은 '주관'
- 왜 (나)의 글쓰기는 미메시스가 말했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하면, 아도르노의 원하는 예술 작품은 미메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글쓰기의 관점에서 말이죠! 떡밥회수 완료!!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글쓴이이 입장에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만을 위해 예술가가 작업을 한 작품에는 인간의 경험의 일부만 표현된다고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예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가치체계로 환원하려는 성질인 동일성을 비판합니다. 근데 오로지 '전위 예술'만을 진정한 예술이라 주장하며, 다른 예술들을 진정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를 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예술을 전위 예술로 동일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위 예술은 그 자체로 비동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에서 말했지만)

- 베냐민: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수로 사진을 찍힌 경우, 이 때 이 사진에는 분명 사진을 찍은 사람의 주관성이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베냐민은 이런 작품에서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메시스에 없는 작품에서라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글쓴이는 예술의 영역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도, 베냐민의 말을 인용하며, 주관성이 없는 작품이더라도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첫 문단에서 말한 아도르노 미학에서의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비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다.

-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글쓴이는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가요?

- 아도르노의 미학: 전위 예술만이 예술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대중 예술도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오로지 전위예술만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하면서, 평가하기 하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불필요한 평가하기 하면서 예술의 영역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폴 세잔 Paul Cézanne(1839-1906)  
〈사과〉 1878, 캔버스에 유채, 19×27 cm